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1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이가영, 노승희, 방신실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KB금융 스타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9월 4일(목) ~ 9월 7일(일) |
| 3 | 장 소 | 블랙스톤 이천 [북 코스(OUT) / 서 코스(IN)] |
| 4 | 주 최 | KB금융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5억 원 (우승상금 2억 7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722야드(예선), 6,718야드(본선)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유현조, 신다인, 홍정민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김민선7, 이동은  고지우, 박지영, 이가영, 김민주, 배소현, 박혜준, 고지원, 박보겸, 김민솔  김시현, 송은아, 서교림, 박민지, 임희정, 이다연, 안송이, 전인지, 박예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08시 ~ 18시  [2라운드] 08시 ~ 18시(SBS 지상파 16시-17시)  [3라운드] 09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09시 ~ 16시 |

**◈ 1R 4언더파 68타 공동 선두 노승희(14시 4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13>

**소감?**

오늘 그린 공략할 때 파 세이브 하기 쉬운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전략 잘 맞아 떨어졌다. 버디 4개 보다 보기 없이 1라운드 끝내서 기분 좋다.

**위기?**

특별히 위기는 없었다. 오늘 핀위치가 까다로워서 최대한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곳에 놓자고 생각했다. 17개 홀 파 온 했는데, 8번 홀에서 나온 그린 미스가 아쉽다.

**어려운 코스에 강한 편?**

나도 다른 선수들처럼 어렵다고 느낀다. 하지만 러프에서 세컨드 샷을 하면 핀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티 샷 할 때 페어웨이 지키는 것에 집중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. 오늘도 페어웨이 많이 지켰다.

**코스 궁합?**

엄청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매년 점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스스로 성장했구나 느낀다. 그리고 올해는 잔디가 달라지고, 코스 컨디션도 정말 좋아져서 좋다.

**양잔디 중지 선호하는 잔디는?**

사실은 양잔디다. 중지는 플라이어가 날 수도 있어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.

**올해 성적 비결?**

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린 적중률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. 올해 그린 적중률과 퍼트 부분에서 톱텐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. 그린 적중률은 수치가 작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, 퍼트가 좋아졌다.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.

**퍼트 좋아진 이유?**

전지훈련에서 퍼트 연습 많이 했고, 퍼트를 잘하려면 거리감이 좋아야 하는데, 올해 대회장에 가면 거리감 연습을 많이 했다.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.

**남은 3일?**

오늘처럼 쉽게 파세이브 할 수 있는 공략으로 플레이할 생각이다. 그렇게 하다 보면 버디 기회가 올 것이라 믿는다. 그 기회를 잡으면서 플레이하겠다.

**◈ 1R 4언더파 68타 공동 선두 이가영(14시 4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883>

**소감**

오늘 샷 감이 좋아서 실수 없이 플레이 했다. 위기가 와도 파세이브로 마무리하면서 좋았다.

**오늘 샷이 어떻게 잘 됐나?**

18홀 돌면서 파 온 다 했다. 그린 경사가 어렵지만 샷이 좋아 핀이 있는 같은 단에서 플레이해서 편했다.

**잔디?**

중지로 바뀌면서 코스 상태가 정말 좋다.

**세팅?**

그린이 어려운 코스라 같은 단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샷을 똑똑하게 해야 한다.

**메이저 대회라 우승 의욕이 더 있을 것 같은데?**

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보다 내 샷을 좀 더 잘 만들자는 생각이다.

**◈ 1R 3언더파 69타 단독 3위 방신실(14시 4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5>

**소감**

어제 밤에 1라운드 핀 포지션이 나와 야디지북을 정리하면서 놀랐다. 핀위치가 정말 어렵다고 느껴서, 공간을 사용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더니 좋은 성적 나왔다. 특히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해서 다행이다.

**위기?**

티 샷 전반적으로 좋았는데, 후반에 우측으로 가는 샷이 두 번 나왔다. 특히 후반 두 번째 홀인 2번 홀에서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캐디가 볼을 찾아줬는데, 러프가 깊어 58도웨지로 꺼냈다. 레이업하고 보기로 막아서 다행이었다.

**그 뒤로는 버디 2개가 나왔는데?**

그 홀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홀이었다. 보기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홀에서는 자신 있게 쳐보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.

**그 동안 이 대회에서 만족할만한 성적 못 냈었는데?**

메이저 대회인 만큼 코스 세팅이 어렵고 러프도 까다로워 뜻대로 안 풀렸다. 또 스폰서 대회라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. 물론 올해도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, 그 부담감을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.

**남은 라운드?**

중지로 바뀌면서 시각적으로 넓어졌다. 그래도 페어웨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. 전략적으로 티 샷 클럽을 선택하고, 공간을 잘 사용하겠다.